

교육시설 디자인 공모전 소고

A thought on Architecture Competit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강 태 응 / 정회원, 단국대 건축대학 건축학과 조교수
Kang, Tae-Woong / Assistant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kangtaewoong@gmail.com

1. 서론

“교수님 공모전 입상의 판단기준은 뭔가요?” 3학년 설계 통합평가를 마치고 1, 2, 3등을 선정 후 수상을 끝낸 직후 학생들에게 들었던 질문이다(이미 공모전의 성적은 몇 주 전 발표가 된 상황임). 우리 대학은 3학년 전체가 공모전에 참가한 최대 참가 대학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공모전에 대한 소감을 간략히 적어보고자 한다.

그러면 공모전의 결과는? 처음부터 훌륭한 결과를 예상하고 한 것이 아니라 애초의 목적이 설계수업의 독려와 학생들의 경험 차원에서 응모했기에 결과는 그리 섭섭하지는 않다(물론 학생들은 다르게 생각했겠지만...). 그런데 서두에 밝힌 학생의 질문에 필자는 사실 답을 망설였다. 학생들에게 공모전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건설경기가 어려워지고, 대규모 설계회사가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 규모에 걸맞지 않게 많은 설계 프로젝트 수주하는 마당에 소위 메이저라고 하는 설계사 무실뿐 아니라 중/소규모의 설계사무실도 거의 고사 직전이라 취업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서글프지만 학생들은 정글의 법칙에 순응을 잘하고 있다. 물론 선배들의 정겨운 조언이 있었겠지만 말이다. 이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대부분의 건축전공 학생들에게 있어 스펙 만들기는 필수이고 공모전의 참가와 입상은 스펙 만들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 된다. 몇 개 안 되는 국내 공모전에서 하나의 공모전이 더 추가되었으니 스펙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지도교수인 필자가 학생들에게 스펙

하나 만들어 주려고 기획한 것이 아니니 이걸 학생들의 몫이라 할 수 있다(취업도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대학이 취업사관학교는 아니지 않은가?).

필자의 최초 기획 의도로만 본다면 우리 학과가 이번에 설계 수업과 공모전을 연계한 것은 어느 면에서는 실패이고 또 어느 면에서는 얻은 것이 있다.

아시다시피 공모전은 보이기 위한 의도가 강하다. 따라서 훌륭한 개념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대부분의 공모전 심사는 몇 백 개가 넘는 작품의 내용을 판단하고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표현력은 한 작품에 몇 분 안 되는 판단시간을 고려했을 때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설계수업의 본질에 충실할 것과 공모전 응모용 결과물을 만족스럽게 생산하는 것을 동시에 하는 것이 16주 설계수업으로는 조금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대학의 문제다). 그러나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에게 표현이 중요하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준 것은 분명하다.

반대로 잃은 것은 학습 분위기이다. 공모전 결과 발표 후 각 스튜디오는 묘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수상된 자와 안 된 자가 구별된 상황에서 수업분위기는 좀 맥이 빠진 듯했다. 튜터들과 필자는 공모전의 가치와 대학 수업의 가치를 애써 구별하여 강조해야 했다.

그러면 설계수업의 일환으로 하지 않으면 되지 무엇이 문제인가 반문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여하튼 우리는 했고 많은 참가자를 배출한 지도교수의 소감을 학회에서 듣고자 하니 공모전과 수업을 연계하면서 한 학기 동안 느낀 점 그리고 스튜디오 튜터들과 나누었던 생각들을 가감 없이 풀어 보겠다.

2. 본론

2.1 설계 수업

우리 대학 3학년 2학기의 설계수업의 방향은 교육시설의 리모델링이다. 한국교육시설학회의 10대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고 필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DQI위원회의 주요 관심사인 사용자 참여 설계 방식에 골몰하는 와중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혁신학교라고 불릴 수 있는 남한산초등학교의 리모델링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그림 1).



그림 1. 남한산 초등학교 전경

3학년 스튜디오 튜터들로부터 교육시설 자체도 쉬운 프로젝트는 아닌데 생소한 교육개념인 ‘혁신학교’라는 것, 게다가 리모델링과 공모전 응모까지 해야 해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주제 자체는 의미 있는 일이고 공모전을 경험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 그냥 추진하였다. 학생들은 지금까지 몇 년간을 학생의 신분으로 있지만, 팀 작업을 통해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는 교육본질에 대해 생각들을 해야 했다.

어떤 팀은 교육의 본질적인 생각들을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들을 단편영화로 만들기도 하고(그림 2, 3), 다른 팀은 필자의 도움을 받아 DQI Card를 이용해 남한산 초등학교 학생들과 어울리고 바쁘신 선생님들을 괴롭히며 학교 건물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단초들을 뽑아내려고 하였다(그림 4). 또 다른 팀은 운동장에 자신들이 제작한 설치물(Installation)을 만들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는 작업도 하였다(그림 5).

이런 작업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본질을 고민하고 정말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교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혁신학교’라는 프로그램에 접근하게 했다. 그러나 과정 중 튜터들 사이에 논쟁이 생겼다. 그도 그럴 것이 공모전이 걸려 있으니 각 스튜디오는 본의 아니게 공모전 성적에 민감하게 된 것이다. 학생의 지도를 공모전을 위한 결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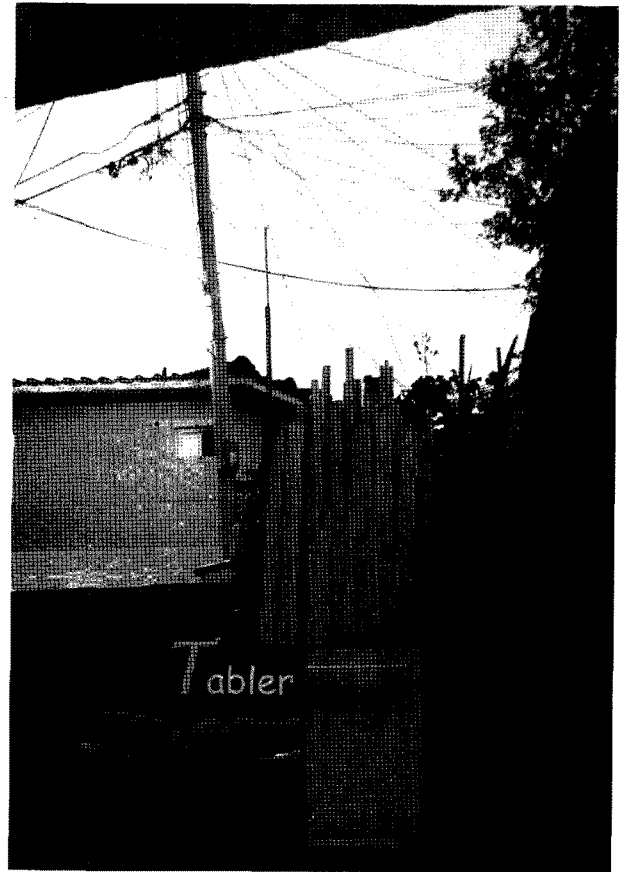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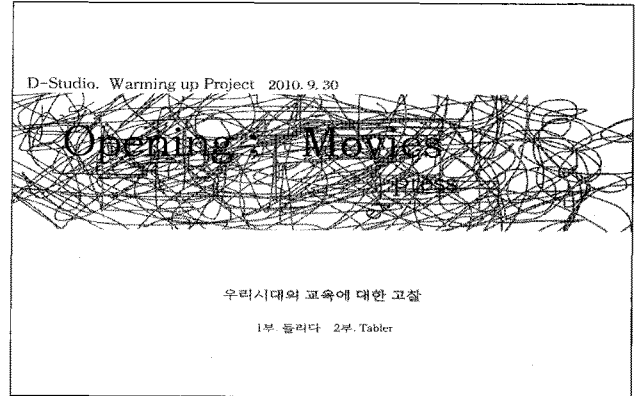


그림 2. 단편 영화 포스터

맞추어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좀 더 건축 본질적인 이야기와 그 교육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의 논쟁은 학년 코디인 필자가 정리(공모전은 이번 학기의 본 목표가 아니니 교육과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것의 교육에 초점을 두었음)해서 일단락이 된 듯했지만, 공모전의 심사결과가 발표된 후 스튜디오별 분위기는 짐작 대로였다.

거기에 3학년 설계 최종 평가를 공모전 결과 발표 이후에 했고 그 평가 결과가 공모전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 의문을 참지 못하고 필자에게 질문한 것이다. “교수님 공모전 입상의 판단기준은 뭐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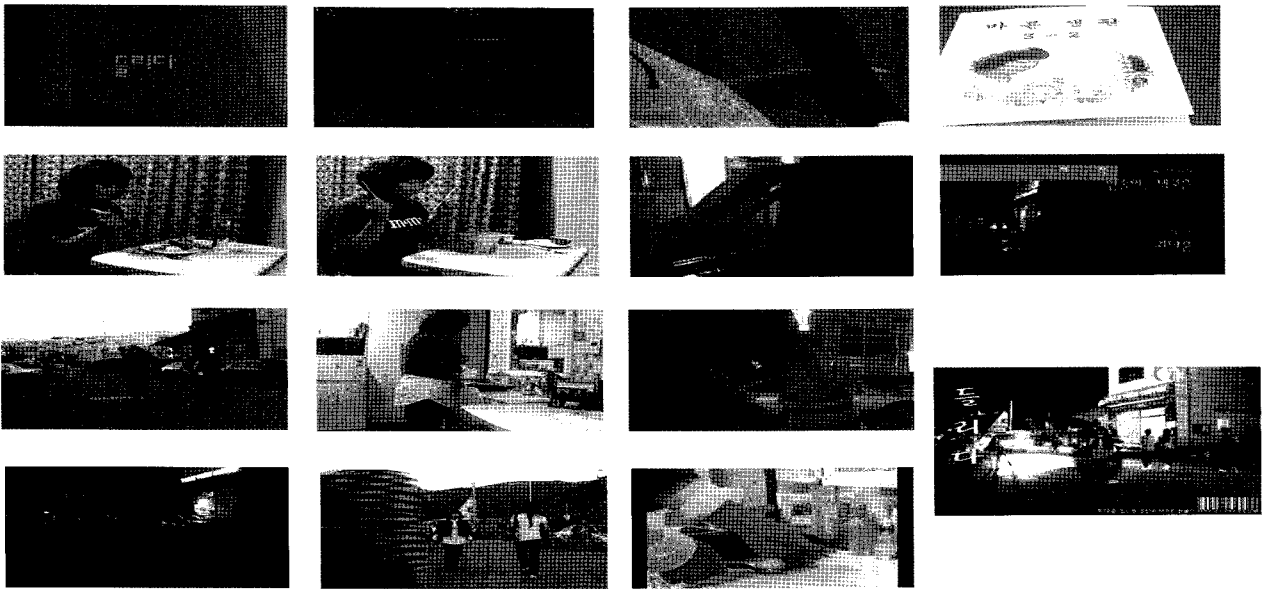


그림 3. 단편 영화 '들리다' 스틸 컷

필자는 어떻게 답해야 했을까? 공모전과 대학에서의 평가기준은 달라? 공모전은 표현이 좋아야 해! 좋은 개념만으로는 안 돼! 모든 것은 표현되어야 하고 그래픽은 참신하고 세련되어야 하고, 패널의 레이아웃은 깔끔해야 해. 왜냐하면, 공모전은 일단 눈에 들어와야 하거든.

참고로 우리 대학의 설계 평가 방법은 흡사 공모전과 같다. 두 번을 하는데 한 번은 외부 크리틱을 모시고 순수하게 발표와 크리틱만 하고 다른 날에 모든 작품을 전시해놓고 3학년 튜터 모두가 일일이 평가를 한 후 점수를 합산하여 최우수, 우수작을 선정한다. 그러니 공모전의 결과와 다르게 나오는 것이 학생들 생각엔 이상한 것이다. 심사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면 문제는 판단 기준을 포함한 공모전의 지향점일 것이다.

2.2 공모전의 성격

사실 필자는 학기 중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 공모전의 성격과 평가기준에 대해 학생들의 질문을 받곤 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면서 안면이 있는 위원께 질문

을 한 적이 있다. 성격은 문화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이든 다 된다(미래지향적이고, 지역 커뮤니티를 아우르고, 친환경적이고). 하지만,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선정된 심사자의 기준에 맡기는 것. 그냥 우리 학회의 공모전도 어느 공모전과 같은 성격이었던 것이다(물론 제1회라서 그랬을 것이다).

학회의 회원으로서 필자는 우리 학회의 공모전이 어느 공모전과 달랐으면 한다. 우리는 건축학회가 아니라 한국 교육시설학회가 아닌가? 최근 우리나라의 교육계는 부글 부글 끓고 있는 용암 같다. 더 이상 주체 못할 정도의 사교육비에 학부모는 휘청거린다. 교육시설의 양적 증가에 기여한 BTL이라는 사업 방식에 의해 교육시설은 이제 거의 포화 상태다. 그러나 양적 증가의 다른 얼굴은 전국 어디를 가나 비슷한 크기의 비슷한 교육공간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 소프트웨어가 바뀌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하드웨어도 바뀌어야 한다. 매년 교육 및 교육시설의 중요한 이슈를 찾아 공모전을 통해 던지면 어떨까? 우리 학회는



그림 4. DQI cards를 이용한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초등학생과의 토론(좌), 번역한 DQI-card



그림 5. 남한산 초등학교 설치물

이 공모전의 결과를 다른 곳에서 재전시할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다. 현장에서 교육하는 교사들과 관계자들에게 참신한 학생들의 새로운 생각들을 모여줄 모양이다. 좋은 생각이다.

또한, 2010년 추계 학술대회에서 우리는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교육시설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실감했다. 그러나 모아지지 않은 생각은 그 임팩트가 약하다. 특정한 이슈를 던지고 그 이슈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밀도 높게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공모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제를 구체적으로 던지고 심사기준과 방법을 결정하고 홍보도 필요할 것이다. 시기를 조정하면 상승효과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의 제안은 공모전의 시기를 겨울 방학기간으로 하고 제출을 3월 초 즈음해서 발표와 전시를 4월 우리 학회 춘계 학술대회와 연계를 해도 좋을 듯하다(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학기 중 결과 발표가 교육상 썩 좋지 않았다는 경험과도 관련 있다).

공모전의 주제와 학술대회의 주제를 관련지을 수도 있고 학술대회는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에게 건축이 자본의 시녀가 아니라 아직은 사회에 대해 할 일이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공모전은 축제라는 것을 우리 학회가 심어 줄 수 있지 않을까?

2.3 제출 방식

초기 공지된 사항인 출력물 제출에서 패널 제출로 변경이 되었을 때 학생들은 역시 당황했다. 서울/경기지역 대학이야 어떻게든 학생들이 직접 제출을 하겠지만, 지방에서는 난감했을 것이다. 아마도 476팀이 접수를 하고 272팀이 제출한 것에는 제출방식의 변경에 탓이 있으리라.

급하게 공모전 위원회에서 추가 공지를 하여 출력물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패널 처리된 결과물과 돌돌말린 결과물의 차이가 만들어낼 결과를 무시 못했을 것이다. 우리 학교에서도 대부분이 패널 작업을 했고 그 부피가 커서 승용차 세 대로 운반했다. 제출과정에서도 예상했던 바와 같이 학회 사무국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최종 마감일에 압박하여 거의 마지막 날에 제출하는 경향이 짙었다. 우리 학교의 경우에도 마지막 날에 학생 대표 몇 명이 일괄적으로 취합하여 접수하는 바람에 개인별 접수번호와 소속확인, 접수증 발급 등의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물론 최종결과물의 익명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정확한 접수확인 통보를 위하여 이러

한 개별적인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지만, 제출방식에 관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각종 공모전은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공공의 장소에서 자신의 생각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덤으로 스펙 한 줄까지). 필자도 학생 때 몇 번의 공모전에 응모를 했지만 썩 승률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 그럴 때마다 내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며 스스로 당위를 세웠다. 이제 필자가 선생이 되어서 때때로 공모전을 지도해야 하는 입장에 섰다. 지도하는 과정에 신선한 생각들이 건축적으로 잘 변환되어서 칭찬을 했는데 입상도 못한 학생에게 운이 없었다고 말하기보다 결과를 인정하고 다시해보자고 독려할만한 매력 있는 공모전이 있었으면 한다.

이제 첫 걸음을 디딘 우리 학회의 공모전이 횡수를 거듭하면서 자신 있게 학생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공모전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